

안동권씨 검교공파 회장 이·취임식 거행

안동권씨 검교공파(회장 권정택) 회장 이·취임식이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영주 축협 한우프라자에서 권정택(상주) 이임 회장을 비롯하여 권태정(서울) 취임 회장, 권영창 안동권씨대중회장, 권정환 고문(상주), 권무탁 고문(영주), 권춘택 고문(영주), 권영건 사복재 문중 전 회장, 권중수 사복재 문중 회장, 권오철 사무국장 등 서울, 상주, 안동, 봉화 등 종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조 사무국장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안동권씨는 안동이 본거지이지만, 안동권씨 검교공파는 고려검교대장군인(卞)척(備 10세) 안동권씨 15개 파중에 일파로 본거지는 상주시 공검면 울곡리이다. 또한 파조의 묘소와 유적을 모두 실전(失傳) 상태라 1982년 제향후에 단소를 설단(設壇)을 할 것을 발의하여 자금 보급 및 공사를 2년간에 걸쳐 마치고 1984년 4월에 공제를 올리고 음력 9월 중정일(中丁日)을 지정하여 고려검교대장군 단소 앞에서 추향제를 올리게 되었다. 단소 관리는 단소 관리위원회로 명칭하여 이어오다가 2004년에 검교공파총회로 법인설립되어 초대 권정철, 제2대 권태운, 제3대 권태강, 제4대 권무탁, 제5대 권정택, 제6대 권태정 회장이다.

이날 검교공파 회장 이·취임식엔 회장 권정택(상주), 신임회장 권태정(서울), 안동권씨대중회 권영창 회장과 상주에 권기식 파종손 권정환 원로 영주에 권무탁 원로 권춘택 원로, 권영건 사복재문중 전 회



장 등 상주, 서울, 안동, 성주, 봉화 등에서 7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영조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에 이어서 내빈소개는 권중수부회장이 맡아서 한분한분 소개를 하였으며, 권정택 회장은 이임사에서 "임기 3년 동안 함께 도와주신 원로 고문님과 권태혁 수석부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송조사상을 초석으로 검교공파 족친들의 화합된 마음으로 매년 9월 중정일에 고려검교대장군 단소 앞에서 추향제를 올렸다.(이하생략) 권영창 대중회회장의 격려사, 권무탁 원로의 축사로 1부행사와 2부 행사로 권정택 회장이 권태정 신임회장에 추대장과 검교공파기를 전달하고, 신임회장의 취임사와(오늘 영주에서 검교공파 이·취임식을 준비해

주신 권중수 사복재 문중회장님과 권오철 국장께 감사하며 사복재 문중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언론사에 평생을 근무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을 검교공파 족친들에게 작은 마음이나마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영광이며 기쁜 마음이다(이하생략)"고 말했다.

임원들의 선임장 전달로 폐회를 하였다. 행사가 끝나고 권중수사복재문중회장과 권오철 국장이 동행하여 서울에서 온(상주 16세(卍)회(物)의 후손) 10여명과 영주 구성공원을 찾아 신도비와 반구정, 봉송대 등 사복재 선생의 열을 상기하며 유적지를 탐방하고, 신비의 고장인 영주시의 특별음식인 묵밥을 맛보고 늦은 시간에 헤어졌다.

권영조 총무부장

안양종친회 회장 이취임식

안양종친회 회장(회장 권용준) 이·취임식이 3월 3일 18시 30분 평촌역 인근 마벨리에 평촌점에서 권용준 회장을 비롯하여 최대로 안양시장, 이성식 베드민턴조치위 위원장, 정훈 안양시 베드민턴협회 협회장, 권정섭 고문,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 겸 편집국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은 지키되 분위기는 따뜻하게'라는 모토를 내걸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신임회장 15명과 권순보 신임 회장의 아들과 딸, 사위까지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권정걸 전 회장은 수개월 전 예약된 외국 출장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며 이취임식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왔다.

권용준 회장은 이임사에서 "2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부족한 면도 많았다. 부족한 점은 잊어버리고 좋았던 것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출생률이 저하된다는 것이다. 안동권씨가 모범이 되어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출산장려금 30만원, 초, 중, 고 20만원, 대학 입학 시 5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자손이 번창해야 하고 또 이것이 국가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바람을 우리 종친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역에 살면서 일가친척 모르면 슬픈 일이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대를 이어 갔으면 좋겠다. 신임 권순보 회장님은 청년회장을 하면서 종친회에 기여도 많았다. 훌륭하신 분이요. 적극적으로 후원



해서 종친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역대 회장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우리 종친회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대로 안양시장은 축사에서 "저는 경주최씨인데 오늘날만큼은 권가가 되고 싶다. '논어' 자장편에 군자삼변(君子三變)이란 말이 있는데, 망지엄연(望之嚴然) 즉지야온(即之也溫) 청기언어(聽其言也厲)이다. 군자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엄숙함과 따뜻함과 논리력이 그것인데 우리 권순보 회장님이 다 갖추신 것 같다. 앞으로 안동권씨 안양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권행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권영창 회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권영창 회장은 "권용준 회장의 국제로타리 클럽 3750지구

총재 취임을 축하하고, 권순보 신임 회장께서 결속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안양종친회가 나날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보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종친회가 되도록 종친회의 방향을 바꿔서 젊은 사람들이 바톤 이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사람 냄새나는 안양종친회, 장학금도 많이 주는 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종친 간의 화합과 세대 간의 소통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행사 말미에는 참석 종친들의 즐거운 참여 속에 행운의 경품 추첨 행사가 진행되어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추첨을 통해 행운의 주인공들이 선정되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나주종친회 양촌 권근 삼대묘소 참배

나주종친회(회장 권순일) 회원 33명은 3월 22일 이른 아침 나주를 출발해서 음성에 위치한 문충공 양촌 권근 삼대묘소를 참배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협 문충공 회장, 권혁중 총제공 회장, 권혁만 길창군 회장, 권혁인 양촌 권근 선생의 종손, 음원에서 내려온 권인식 회장, 권행완 대중회 편집국장 등 모두 40여 명의 총제공 후손들이 함께 참배했다.

먼저 권순일 회장이 문충공 묘소에 석잔을 헌작한 후, 다같이 재배했다. 권오협 회장은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많은 총제공 후손들이 모인 것은 처음이라서 참으로 감개무량하다"고 인사말을 한 후, "지금 회장님께서 석 잔을 올리셨다. 그런데 왜 석 잔을 올리는지 아느냐, 그 이유는 할머니가 두 분이기 때문이다. 양촌 선생의 첫째 부인이신 고성씨 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산소는 없지만 할머니를 생각해서 올리는 것이다. 총제공은 고성씨 할머니 아들이고 맏아들이다. 그런데 총제공께서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자 단양우씨 할머니가 4남 2녀를 데리고 정진인 충주로 내려와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셨다. 그래서 충주에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었다"고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양촌 선생 5형제 이야기, 총제공, 문경공, 제간공, 안숙공 등 양촌 선생의 네 아들님 이야기, 소한당 권람에 대한 이야기, 원래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에 양촌 선생 묘소를 비롯하여 총제공 묘소와 호군공 묘소도 함께 있었는데 1444년 양촌 선생 묘소는 음성으로 이장하고, 총제공

묘소는 1980년대에 들어서야 충주로 이장했으며, 호군공 묘소는 실현되어 총제공 묘소 옆에 단소를 마련했다는 이야기, 양촌 선생 묘소를 광주에서 음성으로 이장하면서 광릉에서 물이 나와 지나가는 스님이 맞은편 수리산 봉우리를 파보라고 해서 팠더니 산 정상에서 물이 솟았다

권행완 편집국장

안양종친회 이모저모



신임회원 15명 입회 기념



1위 스마일 킹



2위 본인 경품 양보상



3위 경품 하이라이트상



4위 분위기 메이커상

추밀공파 정간공 종중 신축 건물 상량식 거행

추밀공파 정간공 종중(회장 권병돈)에서는 2025년 11월 3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423-5번지, 지하철 3호선 원당역 1번 출구 앞에 위치한 신축 건물 상량식을 거행하였다.

상량식에는 권병돈 정간공 회장을 비롯하여 권순호 매현공 종중 고문, 권용호 매현공 종중 회장 등 다수의 종원들과 건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권혁원 대중회 부회장은 상량문(上梁文)과 상량고사(上梁告辭)를 상재하고 권태환 후손이 상량고사 축문을 낭독했다.

상량문 : 을사년 음력 9월 초하루 계해 일로부터 열나흘날 병자일 오시에 정남향(子坐)으로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올립니다. 대주(岱主) 안동권씨 정간공 종중 회장 무자생 권병돈(權炳敦)

상량고사 : 하늘의 세 빛(해·달·별)에 응하고, 인간 세상의 다섯 가지 복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에 을사년 음력 9월, 초하루 계해일로부터 열나흘날 병오일 오시의 길한 때를 맞아 지금 좋은 시각을 택하여 기둥을 세우고 상량식을 거행합니다. 당주 권병돈이 삼가 고하노니, 고양시 원



당 성사동 413-5번지는 밝은 명당에, 좋은 짝을 이룬 길지이며 영명한 기운이 서리고 잠입하고 빼어나게 아름다운 곳으로 궁전처럼 지었습니다. 이 집을 세워 나날이 발전하고 달마다 더해져 종가의 일은 만대에 번성하고 그 이름은 여러 나라에까지 알려져 좋은 평판과 찬사가 널리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천지신명께서 명을 내려 부디 보우하고 지켜 주시기를 바라며 삼가 머리 숙여 축원하고 공경히 아뢰어 보호를 구합니다.

안동권씨 기원 1097년, 서기 2025년 11월 3일 권혁원

권행완 편집국장



제60사단 이명철 사단장 대중회에 권율장군 기마상 기증

제60사단 권율부대 이명철 사단장이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을 맞이해 부대에서 AI로 제작한 권율장군 기마상을 지난 3월 14일 제433주년 행주대첩제 봉행 이후 안동권씨 대중회에 기증했다. 말을 타고 전장을 지휘하는 역동적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 생동감이 넘친다. 기마상에는 항상 승리하는 '상승 권율(常勝 權楛)'과 제60사단 마크가 상단에 표시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권율의 기백으로 승리하는 보병사단 제60보병사단"이 새겨져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